



김영태작 '그림자 땅-무등산'

아~ 무등산

이문단, 이달까지 특별전... 사진·영상·도에 한자리

무등산의 맛, 멋을 느끼고 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옛 전남도청 분수대 옆에 있는 아시아문화마루에서 '무등에 오르다' 특별기획전을 지난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개최한다.

영상·설치 작품으로 관광객들이 무등산의 숲을 만지고 볼 수 있도록 꾸몄다. 김지준씨는 무등산의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었고, 다기(茶器)를 빚어 관광객들이 무등산 냇가도 마실 수 있도록 했다.

전시회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의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무등산을 문화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설 박 작가는 한지에 먹물을 뿌린 뒤 그 종이를 또다른 한지에 붙이는 콜라주 기법으로 무등산의 모습을 담았다. 여느 평면작품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질감이 화폭에서 느껴진다.

출품작은 사진·영상·도에·회화 등 30여점으로 관광객들이 무등산을 작품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영태 작가는 필름 한 장에 다양한 무등산의 모습을 담은 수묵화 느낌의 작품을 선보인다. 박상희씨는

전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2011년 문화콘텐츠 특성화 상품개발·지원 사업으로 제작된 '무등산 주상절리대 3D영상'도 감상할 수 있다. 전시 개막행사는 3월5일 오후 4시. 관람은 무료. 문의 062-236-0481. /윤영기기자 penfoot@

찰나의 미학

광주사진동호회원전 7일까지 금호갤러리

광주사진동호회(회장 김용배)가 7일까지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2층 금호갤러리에서 제9회 정기회원전을 개최한다. 이번 정기회원전에는 김용배 회장의 'Antelope Canyon', 문방진 광주지법 장흥지원장의 '흑산항으로' 등 회원 100여 명의 130여 점이 전시된다.



김용배작 'Antelope Canyon'

지난 2002년 온·오프라인 모임으로 출발한 광주사진동호회는 매달 1차례 정기모임 및 출사, 사진 교육, 정기전시회 등을 하고 있으며, 현재 온라인 회원은 3200여 명이, 오프라인에서는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광주일보사와 중국 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한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친구, 평어우(朋友)' 사진 콘테스트에서 회원인 김홍직씨가 최우

수상, 꺾인숙씨가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기도 했다. /김경민기자 kki@

'舞鄉 光州' 무용史 한눈에

무용협 '광주 근·현대 무용사' 발간

'무향(舞鄉)' 광주의 무용사(史)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가 나왔다. 광주무용협회(회장 김미숙 조선훈 교수)는 최근 구한말부터 2011년까지 광주 무용계 흐름을 방대한 자료와 함께 정리한 '광주 근·현대무용사'를 펴냈다. 광주시 지원을 받은 이번 책자는 지역 무용인, 대학교수 등을 중심으로 광주근현대무용사편찬위원회(위원장 지원원)를 구성하고 1년여의 자료 수집과 집필과정을 거쳐 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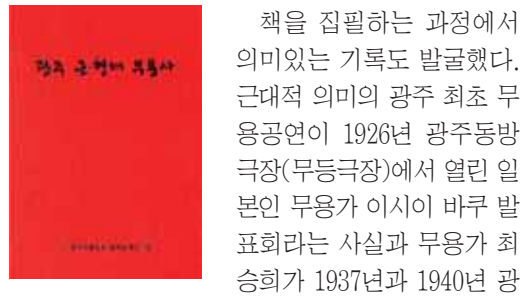
모두 9장으로 구성된 책자에서는 광주 무용의 3대 무용協·조대무용과·시립무용단 조영

구한말부터 2011년까지 흐름 '생생'

축이라 할 수 있는 광주무용협회, 조선대 무용과, 광주시립무용단을 집중조명했다. 또 무용인들을 대거 배출한 56년 역사의 호남예술제와 광주국제발레페스티벌을 비롯해 지역 무용계를 탄탄하게 만들었던 무용학원들과 개인무용단의 활약상도 기록했다.

또 근·현대 한국무용사를 시작으로 같은 시기의 광주·전남 지역 무용계 활동, 일제시대 예인 교육기관이었던 권번, 해방 이후 학교 교육 등도 다뤘다. 지역을 대표하는 무용인 100여명을 정리한 작업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매방·공옥진·김중남·박금자·엄영자·최청자씨 등 광주 무용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을 집중조명했으며 문영철씨 등 1960년대생 이후 주역들도 간략하게 소개했다.

자료 조사원들은 1952년 창간된 광주일보에 실린 60년 동안의 무용 관련 기사 전체를 샅샅이 조사, 자료화했다. 지역 무용계의 대모 이경자 선생과는 인터뷰 약속을 잡아둔 며칠 후 선생이 세상을 떠나 결국 생생한 육성을 살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기록도 발굴했다. 근대적 의미의 광주 최초 무용공연인 1926년 광주동방극장(무등극장)에서 열린 일본인 무용가 이시이 바쿠 발표회는 사실과 무용가 최승희가 1937년과 1940년 광주에서 가진 공연 기록도 찾아냈다. 또 지역 최초의 무용인으로 해외유학파인 옥파일·임윤파 등을 발굴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번 책자는 300페이지 분량으로 올 컬러로 제작, 화려한 무용 사진을 보는 맛을 살렸다. 모두 1000권을 발행했으며 책자는 각 지역 무용학과와 문화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무용협회는 2013~2014년에는 광주무용사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문학작품이나 그림 등과 달리 시간과 공간 예술인 무용 분야는 당시를 '기록'하지 못하면 역사속에서 사라져 버리기 쉽다. 현재의 무용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당시에는 어떤 춤을 췄는지, 지금은 지역의 역량있는 무용인들이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영상으로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미숙 회장은 "우리 지역 무용사에 대한 기록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이번 근현대사 발간으로 지역 무용계의 역사를 어느 정도 기록할 수 있어 의미있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970년 제14회 호남예술제.



1976년 창단된 광주시립무용단의 첫 무대였던 '백조의 호수'



한국-베트남 미술로 通했다

하노이 '프렌드십 특별전' 성료

한국과 베트남 작가들의 작업세계를 조망하는 전시회가 베트남 현지에서 열렸다.(사진)

미술세계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출품했다.

아팅회(Arting·회장 김영희)와 하노이 작가가 주관한 '한국-베트남 프렌드십 특별전'이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전시실에서 개최됐다. 전시는 작가들의 예술교류를 바탕으로 광주와 베트남 하노이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문화재단, 전남대 유라시아 연구소가 후원한 이번 전시에는 양국의

김영희 아팅회 회장은 "서로 관습과 문화가 다른 양국의 작가와 관객들이 소통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백범 김구' 목포서 특별 무대

도립국악단, 내일 시민문화체육센터

전남도립국악단(상임지휘자 박승희)은 3·1절을 맞아 창무극 '백범 김구' 하이라이트 장면을 공연한다. 2일 오후 5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

범의 삶을 창과, 노래, 무용으로 풀어냈다. 주인공 백범 역으로 임방울국악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단원 박준병씨가 출연한다.

이날 선보이는 창무극 '김구'는 전남도립국악단이 서울 국립국악원과 광주 공연에서 큰 호응을 받았던 작품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스승인 백

또 태평소로 듣는 시나위, 가야금 병창 '새타령', 부채춤, 창극 '춘향가' 중 '사랑가', 가야금과 소금 이중주곡 '봄을 여는 소리' 등을 선보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지역협력사업 167건 선정

광주문화재단은 2013년 지역협력 지원사업 5개 분야 167건에 대한 지원을 확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사)선을, 극단시민, 놀이패신명, 서영무용단 등 4개 신규 단체가 비상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지난해 7억7400만원에서 올해 10억44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지난해 선정된 10개 지속단체 이외에

심(www.gjcf.or.kr)과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42~5.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 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외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1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